

# 키우고... 갈아엎고... 이 악순환 언제까지

## 무안 조생종 양파 산지폐기 현장 가보니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이장 정해울(70)씨는 7일 피담 흘려 가꾸은 양파밭을 손수 갈아엎었다. 밭 1만8000㎡ 중 1만2000여㎡의 양파를 폐기했기 때문에 올 양파 농사를 사실상 접었다고 할 수 있다.

정씨가 양파를 폐기한 것은 가격 하락을 우려한 정부 방침 때문이다. 양파 재배 면적은 늘고, 수입량도 증가해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어 양파 주산지 무안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도 양파 산지 폐기=가격 파동이 우려되는 조생종 양파의 산지 폐기가 시작됐다. 7일 무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4년산 양파 수급 조절계획에 맞춰 생산 감축 등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조생양파 재배지역별로 감축희망 신청물량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농가들로부터 조생양파 산지폐기 신청을 받은 결과, 희망물량이 858ha로 당초 정부계획이었던 약 166ha의 5배가 넘자 정부는 3만㎡로 물량을 확대해 이달 22일 해당 지역농협에 사업물량 배정을 했다.

무안군은 정부의 감축 계획량으로 500ha의 32%인 158.48ha를 배정받아 지난달 군, 농협, 생산자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무안군은 지난달 24일 최종 154.77ha를 생산감축 대상물량으로 확정하고 다음날

kg당 630원 작년 30% 수준

가격폭락·생산감축 수년 반복

한·중 FTA 시름 더 깊어져

부터 본격 폐기를 시작했다.

이번 양파생산 감축을 통해 해당농가가 받는 생산비는 kg당 250원 수준으로 정부가 215원,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35원을 보전하고 폐기처분은 농협과 농가에서 부담한다.

◇한중 FTA 앞두고 농가 시름=양파 가격 폭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중 FTA(자유무역 협정)를 앞두고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양파(1kg당) 도매가격은 630원으로 1년 전 2268원보다 3분의 1 가격으로 폭락했다. 평년(1050원)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는 마늘 재배면적은 줄고 양파는 늘어 향후 양파 가격 하락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양파·마늘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2만3908ha로 2013년산 2만36ha보다 19.3%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또 이달 11차 공식 협상이 이뤄질 한·중



7일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에서 농민 정해울씨가 정성스럽게 농사 지은 자신의 양파밭을 갈아엎고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FTA를 앞두고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FTA가 타결되면 값싼 중국산 양파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지 폐기에 머물지 말고 계

약 재배, 직거래시장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양파 수급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 함평군 규제개혁 TF팀 구성

## 등록규제 개선방안 보고회

함평군이 규제 개혁을 위해 20명 규모의 실무진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함평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규제 개혁 추진 TF팀 발대식과 함께 등록규제 개선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실인철 함평군수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한 TF팀은 토지, 건축, 국토계획, 환경, 보건, 복지 등 규제와 관련된 20개 분야 실무진 20명으로 구성됐다.

실제 체육시설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행정편의적인

사안으로 판단해 폐지하고, 체육시설에 특별설비를 설치할 때 군수의 허가, 철거비용 예치 등 번거로운 절차를 폐지해 추가 비용 부담을 갖지 않도록 했다.

또 농기계 임대료를 0.5%에서 0.3%로 인하하고, 군 도시계획 조례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 묘역 이용과 가스 사업 허가시 규정된 군 거주기한을 삭제하거나 단축하고,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시 조건을 부여했던 것 등을 폐지키로 했다.

/함평=황용희기자 hwang@kwangju.co.kr

# 신안군 3년 연속 최우수 배 수출단지 지정

“나주배만 유명한 게 아니라 신안배도 수출 많이 해요.”

신안군이 최근 3년(2011~2013년) 연속 전국 최우수 배 수출단지 지정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지난 3월부터 전국 165개 원예전문 생산단지를 평가한 결과, 신안 배 영농조합법인이 최우수 단지로 지정돼 물류비 지원 및 선진지 연수 기회를 부여 받게 됐다.

신안배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1998년 원예전문 생산단지(배 수출단지)로 지정 받

았으며, 지난해까지 미국 LA 등에 매년 500~800여 t의 배를 수출하고 있어 농촌이 어려운 시점에서 효자품목으로 자리를 잡았다.

현재 신안배는 재배면적 97ha에서 연간 2500t을 생산해 가구당 평균 45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난해 저온으로 인공수정율이 떨어져 농가의 고심이 컸지만 올해는 봄철 기상 여건이 좋아 열매달림이 어느해 보다 좋다”고 설명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 영광 한빛원전 이동형 발전차 배치

## 3200kW급... 비상전원 확보

한빛 원자력발전소(영광원전)에 이동형 발전차(사진)가 배치됐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은 최근 지진과 해일로 인한 발전소 정전사고에 대비해 국내 최대 용량인 3200kW급 이동형 발전차를 한빛본부에 배치했다.

이에 따라 원전 전력계통은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수전선로 ▲비상 디젤발전기 ▲대체교류 비상발전기 ▲이동

형 발전차 등 4종의 비상전원을 확보, 최악의 자연재해시에도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영광원전에 배치된 이동형 발전차는 외부 전원과 냉각수 없이도 독자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기냉각식 가스 터빈 엔진과 발전기, 축전지, 연료 이송펌프 등을 장착했다. 비상시 200시간 이상 연속 운전이 가능하고, 최대 3520k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됐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 못자리 만들기 분주한 들녘

최근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들녘에서 주민들이 못자리를 만들고 있다. 모내기할 모를 기르는 못자리는 일년 벼 농사의 시작이다. <함평군 제공>

##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 마늘 주아 이용 재배기술 보급

마늘 주아를 활용해 생산비를 줄이고, 고품질 마늘을 생산할 수 있는 재배기술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마늘 주아 재배는 마늘 줄기 끝에 붙어 있는 주아를 따 종자마늘로 활용하는 기술로, 주아 한 개의 무게가 0.7g이상인 것을 심었을 경우 6쪽 고품질 마늘이 생산되는 것이 특징이다.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을배)는 7일 “마늘 줄기 끝에 붙어있는 주아를 이용한 우량 종구 생산 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마늘을 생산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중점 보급한다”고 밝혔다.

주아 재배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우량종자 생산할 수 있고, 비용을 40% 정도 줄일 수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제가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착한 음식을 만드는 정성 채널A의 마음입니다.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은 불량 먹거리를 고발하고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하는 ‘착한식당’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력으로 원칙을 지키는 식당 주인의 마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채널A의 마음입니다.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채널A <먹거리X파일> 이영돈 PD와 착한식당 <뽕도반>의 이효용 대표

**CHAN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채널A

www.ichannelA.com